



# 제1회 학생인권토론회

체벌 없는 교육 -  
체벌 없는 학생생활교육 불가능한가?

- 일시 : 2015년 4월 4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
- 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프로그램

일정	내 용
10:00~10:10	접수 및 안내
10:10~10:20	인 사 말 :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이상철(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 강은옥(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10:20~10:50 기조발제	“학생생활교육에서 체벌에 관한 고찰” - 김기옥(이리공업고등학교 교사) “참여와 소통으로 체벌 없는 학생생활교육은 가능하다” - 황종락(전주풍남중학교 교사)
10:50~11:15 지정 토론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 이영석(정읍고등학교 학생)
	“체벌 없는 생활교육 정착을 위한 교사의 제언” - 소병권(이성초등학교 교사/전북교총 정책실장)
	“체벌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 양은신(학부모/평등학부모회)
	“학생체벌을 바라보는 중학생의 이야기” - 한주영(완산중학교 학생)
	“우리 아이 학교에서 체벌해도 되는가” - 현병만(학부모)
11:15~12:00	질의 및 자유토론
12:00	정리 및 폐회



# 기조발제

## 학교생활교육에서 체벌에 관한 고찰

김 기 옥 | 이리공업고등학교



3월 어느 날 체벌관련 토론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요량으로 참가하겠다고 했더니 발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니 학생생활지도부장과 학생들이 주 대상이라고 한다. 그것도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략 난감...

체벌에 관한 입장은 법률적 체계와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는 거의 완결된 사항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체벌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필요악처럼 현재의 학교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학생지도를 위해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견해와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조장되는 학교현실을 도외시하고 교사나 학교를 범죄자 취급하거나 변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접근방식은 그리 효과적이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여겨진다. 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나는 내방식대로 간다는 아집을 용인하기는 어렵다.

발제에서는 다른 시도의 정책적 접근과 교사와 학생의 체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세미나보고,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사례와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다른 대안의 모색을 고민해보고자 했다.

## 1. 체벌에 대한 성문법적 규정들

### 체벌

체벌이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거나 억제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친권자나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부당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MB 정부 시절 교원단체총연합회의 요청에 당시 교육부는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구분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언어폭력 같은 경우 직접체벌보다 가혹하다는 권고 및 여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전북학생인권조례 : 전북도의회 7명의 의원이 직권상정하여 의결된 조례는 아래 조항으로 체벌을 폭력으로 규정했음.**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석 :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 금지.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

## 2. 관습적 문구들

체벌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플라톤)

- 귀여운 애한테는 매채를 주고 미운 애한테는 엿을 준다. (한국)
- 미운자식 떡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 매를 야끼면 자식을 버린다.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영국)

옛 우리 선조의 교육수단으로 초 달(楚撻)이 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다는 것이다. 초 달을 맞지 않으면 서당 훈장을 찾아가 섭섭하다는 뜻을 전하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과거시험 등을 통해 문장력이 뛰어나면 삼십 절 초(三十折楚)니 오십 절 초(五十折楚) 문장이니 하며 칭찬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체벌에 관대한 영국에서 체벌을 불법화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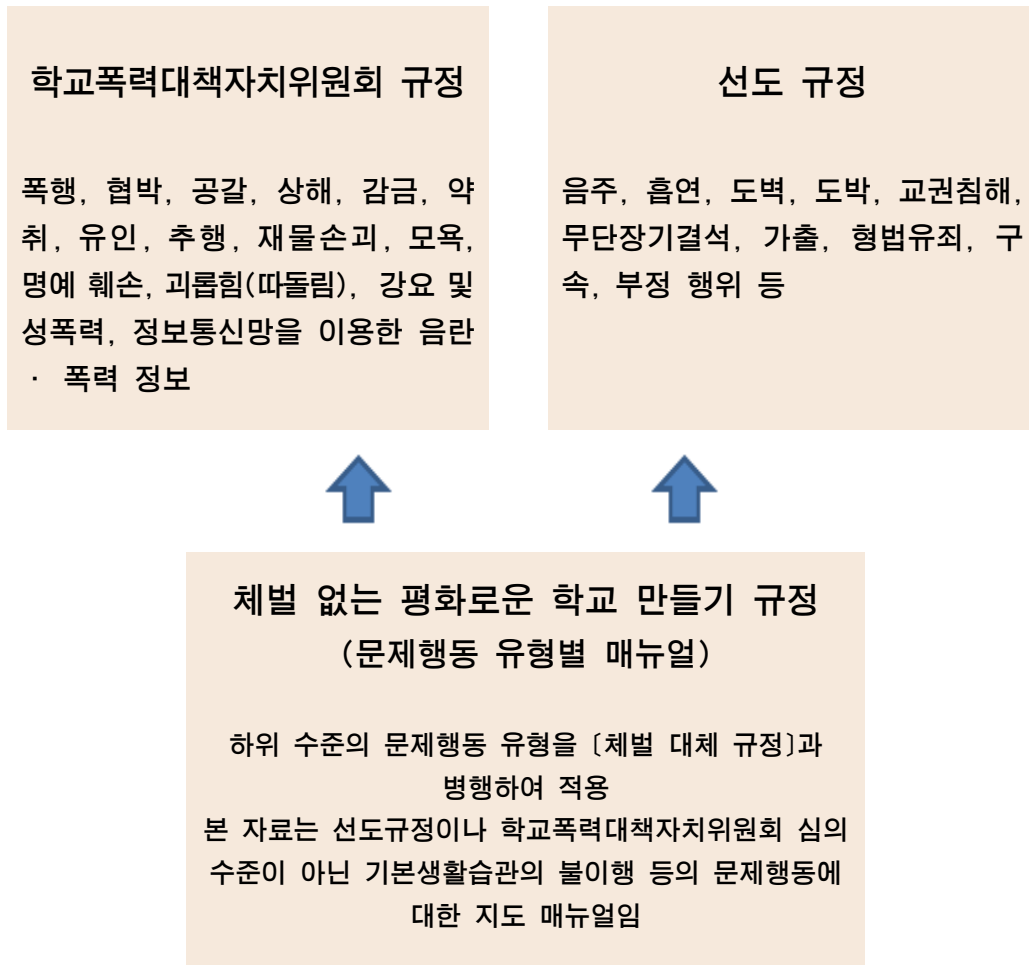
## 3. 제도적 접근 사례

### ◆ 경기도 교육청사례

##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 내용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기존 생활지도방안 (활용 예시)	1	학생 자치 법정	규칙제정, 연계방법, 운영 예시 자료
	2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상벌점 기준표 및 상벌점 상쇄 예시 자료
	3	자아 성찰 교실	자아 성찰 교실 운영 방안 및 학생 지도 프로그램 예시
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성찰중심활동)	4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5	잠시 마음 다스리기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제 필요할 때
	6	웹 기반 교실 활용하기	인터넷 동영상 감상 후 감상문 쓰고 봉사활동하기
	7	침묵 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과제중심활동)	8	암송하며 생각하기	시 외워 쓰기, 느낀 점 쓰기
	9	독후감 쓰기	즐거워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10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11	과제 수행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나 찾는 여행 (소중한 나, 10대뉴스, 앨범, 연표 만들기) 꿈 나래 펴기 (나만의 빛깔, 미래 내 모습, 꿈 지도, 아바타)
	12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13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 지키기, 상호 권리 존중하기
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봉사중심활동)	14	도우미 활동하기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5	교내 봉사 활동하기	책임과제 활동, 교내봉사활동, 캠페인활동
	16	사회봉사 활동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복지시설 봉사활동
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상담중심활동)	17	상담하기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면담, 학부모내교 면담
	18	Wee-센터 활용하기	이용방법, 활동내용
	19	예술 치료 활용하기	미술 치료 예시자료
	20	건강하게 생활하기	금연지도, 안전지도
	21	부모 일터 체험하기	부모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22	사제 동행하기	몸으로, 마음으로, 여럿이 동행하기

## ◆ 서울교육청 문제행동 유형별 매뉴얼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신체폭행** 때리기, 발 걷기, 밀치기,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가혹행위, 감금

**언어폭력**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기

**금품갈취** 빼앗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따돌림**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괴롭힘**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핀잔주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사이버 및 매체폭력** 협박, 비난, 위협, 사이버머니 훔치기,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댓글 달기, 동영상 찍거나 유포시키기 등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 10세 미만의 소년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로 징계 처분함
- 10세 이상의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리함

## 나. 학교선도규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

**학교선도규정** 부정행위, 금품절취, 음주 및 흡연 등 학교폭력과 관련 없는 비행과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한 중대한 행동일 때는 학교선도규정에 의거 해당 학생을 징계합니다.

징계절차 : 선도위원회 개최 통보→학생·학부모 의견진술→징계에 관한 논의→징계→재심청구권 부여

징계종류 :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의무교육기간은 제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안내)

**생활평점제** 별점의 누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징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다.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활용하기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들의 사소한 문제행동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처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4. 체벌 대체할 방안관련 교사글 사례

- 송승훈(서울 광동중합고 교사)

### 가. 어디서 체벌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는가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폭력적 체벌은 줄어드는 분위기다. 사회에서 하도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럽게 하니 그렇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교사가 수준이 높아져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권력으로 모순을 내리눌렀기에 그렇다. 교사 집단 스스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서 극복한 게 아니기에, 지금 체벌은 해결의 길에 접어드는 게 아니다. 단지 잠복기에 들어갔을 뿐이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 다시 발병할 수 있다.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창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낡은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괴와 창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체벌이 왜 생기는지를 따져본다.

#### 1) 학생에게 모욕당한다고 느낄 때

교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학생이 했을 때, 교사가 자존심을 상해하며 감정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체벌이다. 보통 인간적 감정의 문제여서, 누구나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울컥하는 심정이 원인이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흥분이 일상화되어 나타나는 교사가 그에 해당한다. 이런 교사는 까뮈가 쓴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과 닮아 있다. 햇살에 눈이 부시자 기분이 이상해져서 사람을 총을 쏘죽인 피르소처럼, 그냥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아무 의식없이 툭툭 가볍게 치기도 하고, 때로 힘주어 때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 대안은 첫째,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는 기술에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도 일단 하나의 인간관계라 여기면 편하다. 선생님이 앞에 있던 말던 뻑뻑 소리지르며 짜증내고 인상쓰는 아이들이라고 개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가정교육이 다 깨져버려서 그렇다는 비판은 타당하지만, 당장 교사의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하고 말하는 것은 무력할 따름이다.

한탄하는 대신에, 나는, 내가 교사로서 학생에게 지킬 예의를 깎듯이 지킬 테니, 학생인 너희들도 사람이 사람에게 기본으로 지킬 예의를 교사인 나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인상 쓰지 말고, 나보다 먼저 큰소리 내지 말고, 대화를 시도하기 이전에 짜증 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네 앞에서 건들거리지 않으니 너도 내 앞에서 바로 서 주기를 바란다며, 이래야 사람과 사람이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바로잡혀서, 감정적 체벌을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두번째 대안은 상황을 ‘객관’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그 학생은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무심코 나온 몸짓인데, 교사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체벌의

충동을 넘어서 폭행의 충동까지 생겨난다. 돌발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이런 학생들의 유형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 주로 어떤 때 교사는 감정적 체벌을 하는가

잘못을 지적했더니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는 학생  
뒤에 나가 있으라 했더니 나가면서 욕을 하는 학생  
수업시간에 소형오락기를 갖고 놀길래 갖고 나오랬더니 인상만 쓰고 앉아 있는 학생  
잠자는 걸 깨웠더니 ‘에이~씨’ 하고 짜증을 내는 학생  
산만한 행동을 지적했는데 그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무시하면서 계속 떠드는 학생  
잘못을 지적하며 어깨를 가볍게 툭 치는데 팔을 휘두르며 신경질을 내는 학생  
지적되어 불려나왔는데 건들거리면서 교사를 비웃듯이 바라보는 학생

“재가 왜 저러나”

“어떻게 저 자신이 잘못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고 흥분하지 말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 어느 교실에서든 흔히 일어나는 상황임을 교사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순간 발끈 하고 폭발하는 감정에 교사가 객관적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충동적 체벌을 상당수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감정적 체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듯, 인간관계를 푸는 기술(The Art of Love)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지혜로 풀어나가는 일은 교사의 몫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사람에게 대한 선부르지 않은 이해와 꾸준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克己復禮, 자기 안의 충동적 자아를 이겨야 공동체 윤리가 죽지 않는다!

## 2) 교육을 인간관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인간을 동물과 비슷한 무질서한 존재로 보고, 그런 인간을 통제·관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정해진 통지표의 길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을 모두 ‘비정상’으로 보기에, 이 관점 아래에서는 병영 수준의 체벌이 일상에서 끊이질 않는다.

이것은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하나의 ‘가치관’이기에 해결이 만만치 않다. 낡은 관념, 낡은 이데올로기이지만, 통제와 복종 그리고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악육강식 논리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 무척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현실에서 대다수 교장들의 가치관 이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학부모, 적지 않은 학생들도 여기에 동조한다. 오랜 권위주의 사회의 산물이랄까. 학교의 통제적 분위기는 교사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교육 주체의 동의에 어느 정도 바탕해 있다. 어떤 체벌 통계조사에서 학생들이 체벌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어느 만큼



계속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의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연수하면 되지 하고 대답할지 모른다. 유인물도 몇 장 내려보내고 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솔직히 우리 사회는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하는가? 혹시 말 잘 듣고 적당히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사회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네 학교에서는 분명히 그렇다. 학교에서 공식 의사소통 체계인 교무회의 문화가 그렇고, 학급 분위기가 그렇다. 이미 온몸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에, 몇 마디 말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로잡힐 일이 아니다. 꼭 우리 국민들이 재벌을 입으로만 비판하면서, 온몸으로 추종하듯이 말이다. 자기 집안에 재벌에 취직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듯이.

사회 전체 문제이기에,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에서 말이다. 이번 보충수업·자율학습 폐지 결정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좋은 실천 모범사례이다. 입바른 소리로만 입시교육을 비판하지 말고, 현실에 작용하는 힘인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인간관리의 교육관, 통제적 교육관은, 체벌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다.

이 교육적 관점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인용한 학생들의 글로 대신한다.

#### 〈학생글 인용 : 김○란 학생이 쓴 글, 99년 2월 졸업〉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담임선생님은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정명훈, 프리미엄북스)와 같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없는 분이였다. 단체생활, 단체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침해하셨다. 하다못해 교복 속에 블라우스 대신 폴라티를 입는 것조차 허락없인 안 됐다. 같은 반이라면 모두 다 똑같은 걸 입어야 한다는 웃기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마치 우리를 야단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바로 선생님의 권위였다. “니들도 아니꼬우면 선생해라”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내가 담임선생님께 질려버린 데는 또한가지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으면 자신들은 신난다. 선생님은 교묘하게도 그점을 이용하시는 것이다. 언젠가 국어시간에 배운 말이 생각났다. ‘폭력보다도 더 강한 것이 동의이다’ 선생님은 재치있는 말로 창피를 주어 다른 아이들의 웃음이라는 동의를 얻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면서 마치 한편의 코미디 연극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다. 그리고 선생님이 누군가를 때릴 때 잔인하게 웃어대는 아이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다. 누군가가 그건 옳지 않다고 아이들에게 깨우쳐주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잘 모를 것 같다. 담임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되기 때문이다.

〈학생글 인용 : 강○자 학생이 쓴 글, 99년 2월 졸업〉

우리나라는 옛부터 스승의 체벌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지만 요즘에 체벌은 이런 성격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어느 선생님이 그날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괜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의 교사들은 체벌에 진정한 의미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다. 한때 대중매체에서 체벌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교사가 가하는 체벌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맞을 의향이 있다. ....대다수가 공부를 자신이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학습이 아니라 선생님·부모님이라는 공포의 인물들의 집약적인 요구에 따라서 하는 듯해서 지금 학생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나로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등이 있으면 꼴찌라는 인물이 있고 꼴찌가 있으면 일등이라는 인물이 있듯이 항상 일등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른들은 너무 일등만을 원한다. 아직 생각도 머리도 몸집도 어린 정말 아직은 어린애 같은 초·중등학생들에게 너무 일찍 큰 짐을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묵직한 가방을 어깨에 매고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큰 산을 향해 누군가가 가라고 하니깐 그냥 가는 것은 아닌지.... 나는 오늘 새삼 이런 생각이 든다. 내 주위의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나의 선생님이 아니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다. 학교는 정말 우리의 수용소일까?

### 3)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일깨운다는 생각에서

이 관점은 학생들이 잘못된 데 대해 말로 일깨워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다. 감정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적지 않은 교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경우에 견주어보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새로운 대안만 제시하는 일이다. 이때 대안에는 실천적 대안과 이론적 설득이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 교사는 전문가라면 때리지 않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고, 사람의 신체에 아픔을 주는 일은 인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폭력에 무감해지고 폭력을 내면화해서 사회적 폭력을 재생산해 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는 논리를 주고받으며 토론할 수 있다. 이들은 학생의 인간 발전을 최고목적으로 하지 않는 왜곡된 가치를 가진 교사들이 아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제 삶으로 교직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칫 통제적 교육관을 갖는 사람이 이 생각을 갖는다면, 더욱 답답한 학교를 만들어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교육 현실이 이 관점의 극복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교실에서 학습하는 상황을 따져보자.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하루종일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 정해진 진도를 정해진 지식을 교사는 전하고 학생은 전해받는다. 이 수동적인 분위기 자체가 체벌을 일구어낸다. 이러한 단순행동의 반복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이 지친 일상이 체벌을 부르는 상황으로 학생과 교사를 이끈다.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체벌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사회적 처지에서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

하루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만 있는 학생이 무슨 예의를 익히고, 무슨 인간에 대한 배려를 배우겠는가. 정해진 커리큘럼을 바쁘게 쫓아가다보면 교사가 자기가 ‘인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 잊을 때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답답한 사회에서 우발적이고 엽기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나듯이, 교사 폭력이나 학생 폭력이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다.

## 나. 체벌을 대체해서 해볼 만한 시도들

잘못한 학생에게 고통을 주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희망이 없는 관점이기예, 교육적이지 않다. 진정한 ‘꾸중’이란 학생이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벌’을 말한다.

벌을 안 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 이상적 관점은 현실에서 무기력하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먼저 이상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콩나물 교실이나 입시 제도나 돈을 최고가치로 여기는 사회와 싸워야 할 것이다. 다양한 욕망과 권력이 판치는 지금 학교 현실에서, 일정한 통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생에게 억압적이지 않게 하는 평화교육의 이상은 모든 교사 누구나 고민할 영역이기도 하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추한 부분을 비추어주기에,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계를 알려주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현장교사들이 체벌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본다.

이 대안들이 교육적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극기복례하는 일이 필요하다. 벌은 교사가 맺힌 것을 푸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몸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요즘같이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고 찰나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참 어렵다. 이 영역은 그러기에 인간의 영역이다. 교사가 불완전한 존재로 자신을 자각하며 늘 반성하며 깨어 있도록 애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평소 학생과 맺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이 관계맺을지에 대해 거듭되는 회의와 고민이 있어야겠다.

### 1) 몸을 움직이는 일

몸은 신체와 정신을 함께 포괄한 말이라 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 (1)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하나들이 떠드는 건 괜찮다. 주의를 주면 되니까. 그런데 전체가 게릴라식으로 떠들면 교사는 아주 힘들어진다.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누구를 주의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학생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다가 10초쯤 뒤에 앉히는 방법이 쓸만하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고 학생들을 일어나게 한 다음, 잔소리를 길게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힌다. 계속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게 했다가 20초쯤 있다가 앉게 한다. 간단하지만 학생에게, 교사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는(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그만이다. 실제 써보면, 꽤 효과가 좋다. 이 벌의 힘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럽다는 교사의 판단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 (2) 재미있는 몸짓하기

벌을 아무리 부드럽게 준다고 해도, 잘못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받는 것이기에 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다. (물론 속이 후련하다는 학생도 있지만 말이다.) 그러기에 수업 때 계속 정신이 없는 학생을 지적해서 일으켜 세운 다음, 거기에 맞는 재미있는 몸짓을 하게 하면, 재미있으면서도 부끄러움에 잘못을 비억압적으로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수업 때 서로 때리며 장난을 심하게 논 학생은, 의자를 뒤로 들고 가서 그 의자 위에 올라선 채 자유의 여신상을 흉내내게 하고, 자꾸 떠드는 학생에게는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 서 있게 한다. ‘너는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을 본받아라’ 하며 슈퍼맨 자세를 취하게 해도 좋다. 그러면 벌을 주는 순간 생기는 어색한 분위기를 새로운 생기로 바꾸어낼 수 있다. 몸짓은 오래하면 안 되고 5분 안에 풀게 해준다. 이렇게 세워두는 벌은 오래해서 별로 안 좋고 짧게 인상깊게 해야 좋다. 이 벌의 힘은 잘못을 부끄러움과 우스개로 풀어내는 데 있다.

### (3) 손잡고 운동장 한 바퀴 돌기

교육에서 통제란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을 때 문제이지, 모든 통제가 악인 것은 아니다. 소규모 학교가 아닌 대규모 학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없다면, 학교는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 전체가 책임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교사가 반 학생 전체에게 ‘그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다. 두레(모둠,조)별로 손을 잡게 한 다음, 나란히 서서 운동장을 한 바퀴만 돌고 오게 한다. 손을 놓고 자기 혼자 앞질러 가는 두레(모둠)는, 다시 한 바퀴를 더 돌게 한다. 운동장에 신발주머니를 들고 나가설 때는 잠시 심각해지다가, 막상 뛰어보면,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처럼 되어버린다. 그것으로 족하다. 몸을 쓰는 벌은 무릇 시작이 엄숙하고 끝이 즐거워야 한다. 아이들에게 친구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도는 일은 색다른 인상을 준다. 어떤 행동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자체로 벌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억에 새겨지는 것, 이 점이 핵심이다.

#### (4) 엮어주기

학생끼리 몸을 부대끼게 하는 일이다. 말썽장자들이 계속 속을 썩일 때, 의미있는 숙제를 내주었는데도 거둬들여 해오지 않을 때, 쓰면 좋다. 수업 끝내고 불러다가 일장훈계를 한 다음,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둘씩 짝을 지은 다음, 서로 엮어주면서 정해진 거리까지 교대로 갖다 오게 하는 벌이다.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러나 땀은 조금 날 만큼 시키면,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재미있는 벌이다.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이 벌을 시키실 분은 없겠지.

## 2) 학습과 관련해서

### (1) 시 외우기 :

분위기 있어지는 벌이다. 그전까지 잘못하면 두들겨맞아본 적밖에 없는 학생이, 잘못해서 교무실에 와서 시를 외우는 모습을 보면, 학생 스스로도 자신을 대견하게 여긴다. 나쁜 행동을 좋은 언어를 통해 축축하게 적시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시 외우기는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하는 간단한 상황에서부터 그밖에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부담없는 방법이다. 수업시간에 본 만화책을 압수했을 때, 대여점에서 빌려온 만화책이라며 돈 물어줘야 한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학생에게 딱히 줄 벌이 마땅치 않을 때도 시 외우기는 쓸 만하다.

소박한 수준에서 시 외우기 벌은, 학생들이 이해할 만하고, 내용도 좋은 시집 대여섯 권을 준비해놓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에게 시집을 한권 집어주고, 마음에 드는 걸 한편 골라서 외워오게 하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 시 외우기를 활용하려면, 상황에 따라 권해줄 시를 파일에 끼어놓고서, 그때그때에 따라 '이게 좋겠구나' 싶은 시를 외워오게 하면 된다. 편집을 해서 조그마한 종이에 복사해놓고, 한 장씩 나누어주어도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시, 감동이 있는 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뜻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시를 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암기훈련일 뿐, 다른 기대 효과가 없어진다.

✓ 상황	✓ 그에 어울리는 시
다툼 학생에게	곽재구, 『받들어꽃』, 『받들어꽃』, 미래사
청소를 도망친 학생에게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자유롭게 1편
떠든 학생에게	『내 무거운 책가방』, 실천문학사. 자유롭게 1편
지각한 학생에게	서정홍, 『58년 개띠』, 보리. 자유롭게 1편
숙제를 안해온 학생에게	양정자, 『아이들의 풀잎노래』, 창작과비평사. 자유롭게 1편
그밖에 학생이 호응할 만한 책들	정호승, 『흔들리지 않는 갈대』, 미래사. 김상욱,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푸른나무. 『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시 100』, 실천문학사.

## (2) 책읽고 글쓰기하기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다. 담배를 피웠을 때나, 계속 같은 잘못을 오랫동안 했을 때, 처벌 대신 쓰는 방법이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글을 받거나, 책을 한권 사오게 해서 읽게 한다. 담배 피다가 걸린 학생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학생과로 가서 벌점 받고 근신을 받을 테냐? 아니면 책을 한권 사와서 독후감을 쓸 테냐?” 이때 역시 학생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이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고통인 그런 책은 적당하지 않다. 어려운 고전보다는 최근에 나와서 학생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책을 권하는 게 좋다. 그리고 꼭 감동이 있는 책이어야 한다. 감동이 없으면 교육도 없다.

✓ 요즘 청소년들이 잘 받아들이는 책 몇 권을 소개함
가정이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 김한수, 『봄비 내리는 날』, 창작과비평사
세상 편한 것만 아는 학생에게 : 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는 학생에게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
지혜가 필요한 학생에게 : 윤구병, 『꼭 같은 것보다는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푸른나무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에게 : 이상석,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친구
성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 김성애·이지연, 『내가 알고 싶은 것 그러나 하이틴 로맨스에도 포르노에도 나오지 않는 것』, 또하나의문화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우리교육
책하고 거리가 먼 학생에게는 동화를 권한다 : 위기철,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사계절
때로 만화를 써도 좋다 : 최정현, 『반쪽이의 육아일기』, 여성신문사.

### 3) 교사와 학생이 서로 교감하는 일 :

#### (1) 신체접촉하기

수업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을 때, 계속 정신없이 떠들거나 너무 건방진 행동을 할 때, 슬쩍 그 학생에게 가서 꼭 안아주며 턱에 난 수염으로 꼭 찔러주는 일이다. 남자 교사가 남학생에게만 쓸 수 있는 별이다. 학생들은 그럼 난리가 난다. 서로 몸이 맞닿을 때 생기는 연대감을 이용한 것이다. 가만히 손을 잡고 잠시 동안 있을 수도 있다. 점심시간 같을 때, 손을 잡고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나눌 수도 있다. 동성간에 하는 것이 좋고, 이성간에는 삼갈 일이다.

#### (2) 그때 상황에 대해 글쓰기하기

자신이 한 행동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게 해서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는 속성이 있어서, 잘못된 그 순간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다. 글쓰기가 갖는 힘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인데, 그 특성을 이용한 별이다. 경찰 조서처럼 ‘네가 잘못했지? 씨!’ 하고 소리치고서 쓰게 하면, 교사의 비위에 맞추는 글이 되어 효과가 반감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사실 자체를 꼼꼼히 쓰라고 주문하면서, 그때 네 마음을 적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지를 짐작해서 적어보라고 얘기하면 된다.

#### (3) 불러다가 1:1 대화하기

나 전달하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큰소리내면 학생도 같이 큰소리낼 수도 있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또는 학생이 아예 입을 다물어버려 일방적 훈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나 전달하기’란 ‘그 상황에서 나는 이런 기분이 들더라. 또 이런 생각도 했지’ 하는 식으로 문제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담담하게 1인칭 시점으로 독백하듯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너 왜 그랬어. 맛 좀 볼래.’ 하고 따지는 말은, 교사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 하는 ‘결과’를 보여줄 뿐이어서, 그 앞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나 전달하기로 말을 하면, 학생도 교사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교사가 먼저 꺼내 놓아야, 학생도 적어도 교사가 자기 심정을 말한 만큼은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4)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퇴근하기

장난꾸러기들 가운데는 지적을 받고 교무실 문을 나서자마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다. 성장기라 제 몸의 기운을 주체 못하는 것이다. 몇 번 계속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또 청소를 도망가버리는 학생을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대 콧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 든다. 그런 아이들은 또 모질게 한번 혼나고 나면 그런 버릇이 고쳐지기도 해서 더욱 체벌해야겠다는 충동이 교사에게 강하게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체벌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지도방법이, 선생님과 함께 퇴근하기이다. 수업이 끝난 다음 곧바로 신발주머니를 들고 교무실로 오게 해서, 교사 옆자리에 앉혀두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이다. 크게 욕박지름은 이미 다른 선생님에게 여러번 당했을 테고 하니,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옆에 앉혀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 (5) 교장실에서 1시간 머물기

정학이 없어지면서 근신이라고 해서 교무실 복도에 책상을 갖다두고 하루를 지내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이 아이들은 그러나 사실 방치 상태이다. 학교 구석구석에 있는 휴지나 줍고, 잡스러운 일이나 동원된다. 수업이 아주 싫은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복도에 책상 갖다 두는 일은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렇게 근신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1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장실 소파에 앉아 있게 하면 어떨까. 소극적으로는 교장실에 그냥 편하게 앉혀만 두어도 좋겠고, 교장 선생님은 신경쓰지 말고 자기 일을 보면 된다. 적극적으로는 교장-학생 상담록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신세대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하지만 나이 지긋한 교장 선생님 앞에서까지 그럴까. 여러 가지를 몸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의 장이 바로 교장실이다.

### 4) 그밖에

#### (1) 종이에 즐겁게 하기

흥분한 학생에게 쓰는 방법이다. 요즘 보면, 선생님께 주먹을 날리는 일이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는데, 보편적 현상이다. 이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까닭은 어른들이 행동을 잘 못해서 청소년들에게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업사회 핵가족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또래집단 안에서 갈등 해소 방법을 잘 못 익혔기 때문이기도 하고, 승자보다는 패배자를 더 만들어내어 기죽이는 우리네 학교 교육 때문이기도 하다.

나 역시도 몇 번 위압적인 학생의 몸짓에 당황한 적이 있다. 수업시간에 3-4분 동안 계속 이상한 손동작을 하기에 지긋이 손을 잡으며 그만 하라고 했더니, 내 손목을 탁 잡으면서 ‘힘도 없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한 적도 있고, 잠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그 학생이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뺨 차버린 일도 있었다. 종이 위에서 1센티를 즐겁고 그 다음 1센티를 띄고 다시 1센티를 즐겁고 1센티를 띄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하게 한다. 감정절제를 하지 못해서 거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시킬 만한 벌이다.

## (2) 운동장 걷게 하기

역시 감정절제를 못해서 막 나가는 학생에게 자기 행동을 되새겨보고 자기 자신과 만나라는 뜻에서 시키는 벌이다. 길을 오랫동안 걷고 있으면, 자신과 관련된 자기 안에 숨어 있던 온갖 이야기들과 만나게 된다. 군인들이 행군을 싫어하는 이유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길을 오랫동안 걷는 일이 전통적으로 종교적 수행에 속해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상황을 난감하게 만드는 학생이 있다면, 조용히 불러서 이름을 불러준 다음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길을 걷게 해도 좋다. 반드시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날씨를 고려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안 넘기는 게 좋다.

## (3) 공익광고

담배를 피웠을 때 쓰면 좋다. 보통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몽둥이로 여러 대 맞는 일로 시작해서 크게 혼이 나는데, 그것은 ‘이렇게 크게 혼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겁주기 정책이다. 그러나 이 겁주기 방법은 그 과격함으로 해서, 잘못된 학생을 그 방향으로 낙인찍어버리는 역효과도 커서, 그 대안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공익광고다. 이 방법의 교육적 의미는 보편적 규정을 어긴 데 대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고민하게 하는 방법이다. 잘못된 일과 관련된 구호를 만들게 한 다음, 다른 반 교실로 들여보내 웃는 얼굴로 인사하게 하고 구호를 큰 소리로 3-4회 외치게 한다. 이때 구호의 끝을 ‘합시다’ 투가 아니라 ‘해요’ 투로 하면, 구호가 부드러워져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담배는 만수무강에 해로워요. 건강한 청소년이 되어 아이엠에프를 극복해요.” 이 웃음에 규칙을 어기는 어두침침한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가 숨어 있다.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여, 서로 의지할 수 있게 꼭 두 명 이상이 함께 하도록 하고, 여학생에게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

## (4)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 갖기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교실에 들어오니 아이들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먼지도 자욱하고 어디선가 과자 냄새도 난다. 이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해보았자 좋은 기분일 것 같지 않다. 잠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자. 수업 시작하기 전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몸가짐을 바로 하고 있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 몸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수선하면, 교사도 학생도 짜증내기 쉽고, 이 짜증은 상호 증폭이 되어서,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체벌을 미리 예방하는,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 (5) 수업시간에 자꾸 화장실을 가겠다는 할 때

생명체인 사람이기에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학생들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선 담배를 피거나 매점에서 과자를 먹거나 하기 때문이다. 또 여럿이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한참 있다가 들어올 때도 있다. 보통 교사들은 처음에 수업 때 화장실 가는 걸 허용하다가, 나중에 학생들이 악용하는 것을 보고, 아예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꼭 가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 평소 다른 ‘양치기 소년’들이 한 장난 때문에,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는 한 사람씩 화장실을 가게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먼저 화장실에 간 사람이 돌아오면, 그다음에야 두번째 사람이 나갈 수 있게 하면 된다.

## 다. 체벌에 대한 잘못된 대안들

### 1) 때리는 것보다 더 학생들을 꼭 잡을 수 있어요! : 뽕뽕이

백지를 주고서 거기에 깨알같은 글씨를 꼭 채워오라는 벌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벌로, 학생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제약하는 최악의 벌이라 할 만하다. 이 벌은 ‘공부를 시킨다’거나 ‘애들을 잡아야 한다’는 선의를 내세우지만, 뽕뽕이가 공부라 되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매하다 하겠고, 만약 학생들을 잡아놓겠다는 의도라면 그것은 일상의 식민화라 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벌 같지만, 뽕뽕이를 해오지 않으면 가혹한 체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체감 공포는 최고다!!! 일상의 영역을 식민지화하는 벌이어서, 학생들은 머리가 점점 나빠진다. 학습의 관점에서도 폐해가 아주 심한,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도 아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최고인 벌로, 이 벌이야말로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교육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 2)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반성문 쓰기

옆자리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표정이다. 그러면서 한탄한다. “애들이 쓴 반성문을 보면 어휴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한데 왜 하는 짓은 계속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는 아~하고 속으로 신음을 삼켰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사기에요.’ 아이들은 교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거기에 맞춰준다. ‘요즘 아이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반성문을 일상적으로 써오게 하는 교사도 있는데, 그 교사에게 속한 아이들은 반성문 몇 장을 정말 순식간에 다 써낸다. 정해진 각본이 뻔한 글이어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죽일 놈이지 선생님 같은 분이 신경써주신데 그런 일을 하다니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 쓰기는 학생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지도방법이라 하겠다. 반성문이라는 글의 양식 자체가 전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행복과 굴종의 표시밖에 안된다. 학생들은 그러는 척하는 것이고, 거기에 교사가 자기만족할 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생활일기나 생활이야기 또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 3) 학교판 박정희 향수? : 해병대 체력단련

요즘 와서 왜 이런 방식이 자주 텔레비전에 등장하는지 답답하다. 고생을 안 해 봐서 아이들이 버릇없다는 생각 때문일까.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 과거 독재자들을 난데없이 조명을 받더니만, 이제는 그간 계속 청산의 대상이던 군사문화가 학교에서마저 대안 이미지로 자꾸 제시된다. 사회에서 박정희 향수가 부는 것과 비슷해서, 예민하게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집단체력도 교사가 함께 학생과 똑같이 뛰면 교육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칫 체벌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보복으로 가해지는 과도한 육체훈련이라면, 또는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며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면.

그리고 쫓고 넘어갈 것 한가지가 있는데, 선착순 뛰기다. 왜 힘없는 아이들은 두 배로 벌을 받아야 하는가.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도 강한 아이들보다 힘이 더 드는데, 힘이 없는 아이들이 또 운동장을 돌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선착순 뛰기는 동료를 밀쳐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비교육적 가치를 담은 벌이다.

### 4) 이거 체벌을 대체한다는 제도 맞아요? :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제도를 칭찬하는 학생은 별로 보지 못했다. 교사들 또한 땀겨름한 표정들이다. 체벌을 대체한다는 이 제도에 대한 반응이 왜 이럴까?

첫번째는 벌점을 주면서도 할 체벌은 또 다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때리시던 분들은 벌점을 주면서도 못내 아쉬운지 손을 댈 때가 많은 모양이다. 과거에는 때리고 끝났는데, 이제는 때리고서 벌점까지 준다는 것이다. 벌점제가 체벌을 없애기는커녕 통제를 위한 족쇄로 변하는 순간이다. 과거에는 교문에서 복장이 걸리면 한두 대 맞고 벌 쓰면 끝났지만, 이제는 한두 대 맞고 벌점 받고 앞드려뻥쳐까지 하고 와야 한다는 불만이다.

두번째는 다른 불만은 벌점제가 주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야기다. 생활하는 과정 그 자체가 평가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무척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린다. 시험성적이 아니라 생활 태도가 평가 요소라니, 꼭 인성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벌점을 받았다고 그 벌점을 상점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만만한 선생님께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모습하며, 상점을 많이 받아 나중에 선행상을 받는 학생을 보면 묵묵히 제 일을 소리없이 하는 학생이라기보다 요령있게 어른·교사에게 잘하는 학생일 때가 많고(그래서 두뇌좋은 일진회 짱이 선행상을 탈 뻔한 적도 있다), 좀 불려다 특별실 청소를 시키려 해도 '상점 주실 거죠? 안 주면 안 해요' 하고 짹 돌아서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이거 영 벌이 벌 같지 않고 상이 상 같지가 않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 제도가 갖는 문제는 운영하면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내재한 모순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본래 취지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많은데, 본래 취지마저 왜곡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떨까. 별점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 어느 학교 풍경이다. 교사들 전반적으로 반대하자, 어느날 갑자기 교장의 명이라며 실시했다. 학생부 교사들이 다짐하던 목소리가 들린다. “맛을 보여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별점을 우습게 본대두.” 그 앞에서는 『모래시계』 삼청교육대에서 본 군대 유격훈련 피티체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끝나고 여학생 몇몇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눈물 흘리고 있고. 이거 별점제인가? 아닌가?

별점제는 일상의 짜증화다. 그리고 체벌? 사라지지 않았어요.

## 라. 글을 마치면서 : 남은 이야기

체벌에 대해 글을 쓰다 보니, 꼭 황색지널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어찌라. 이 모든 게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인 것을. 교사인 내가 신나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맥이 풀린다. 추한 현실을 자꾸 드러내야 현실에서 자유가 점점 더 넓어진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뿐이다.

### 1) 현상을 보고 욕하는 것 당연하지만 원인을 살펴달라,

“교사 집단을 범죄자 취급하면서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나에게 무척 굴욕적이다. 비굴하게까지 느껴지는 변명이다. 욕먹을 게 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도 있다. 교사집단의 엉망인 행태에 대해 비난하면서, 왜 교사들이 그렇게 나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파고드는 목소리를 보지 못했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면, 아궁이를 살펴야 하는 법이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 몇을 쳐버린다고 해서, 낡은 학교사회가 개혁되리라 믿는가.

돌아보면 학교 사회란 곳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일방전달식의 교무회의, 3년 안 된 교사가 교무회의에서 발언하면 눈치 주는 분위기, 논의하다가 말이 막히면 ‘학교는 교장의 명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오만함이 있는 곳. ‘진정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면서 지나쳐도 별 상관없는 작은 잘못에만 매서운 우리들’(김명인, 『동두천』)이 우리네 교사들의 모습이다. 군것질할 돈을 모아 굶주린 북한 사라들을 돕게 했다고 교무실에서 교감에게 떡살 잡힌 교사가 있는 한, 교사 집단의 낡은 행태는 영원할 것이다. 교사가 교사답게 교단에 설 수 있을 때, 교사의 부정적 모습들도 자체 치유될 수 있다.

건강한 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도 관심 가져주기를! 이러 학교상황에서는 멀쩡한 교사도 『여고괴담』에 출현하기에 적당한 교사가 되기 쉽다.

### 2) 최고의 의술이란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것

규칙과 법은 제 역할이 있다. 규칙과 법을 적용하고, 규칙과 법의 힘에 기대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 방법이다. 하지만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는 규칙과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다. 살이 썩어서 고름이 찻을 때 그 고름을 짜버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평소 몸을 건강히 해서 끓는 곳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집단의 건강한 부위를 계속 키워주어서 끓은 부위를 치유한다는 생각도 함께 하면 좋겠다. 언제나 최고의 의술은 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의학이 아닌가.

사범대학 교사양성과정 문제도 이야기하자.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대해 고민할 내용을 교사양성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지금 사범대의 열악한 현실에서 안주하는 교육과정에서, 체벌 문제를 지체롭게 해결할 교사가 어디 길러지겠는가. 왜 사범대의 교육과정은 그토록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거리가 먼가. 교사들은 제대로 된 감정 조절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체벌이 이토록 중요한 사회 쟁점이자 교육 과제라면, 그것을 대학에서 체계있게 가르쳐야 한다. 관점없는 초임교사들의 무분별한 체벌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도 초임시절 한때 학생을 때리는데 재미를 붙인 적이 있었다. 한번 두번 때리다보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딱 집중도 더 잘하고 해서 멋모르고 학생들의 종아리를 걷어올리게 하고 손을 댄 적이 여러번이다. 너무 엉망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을 아주 세게 패준 적도 있다. 대학 때 교육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학문이란 본래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류가 고민을 축적해 온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부는 현실과 지나치게 거리가 먼가 보다. 나는 열심히 여러 외국 상담이론가 이름을 외우고, 이론을 배웠지만, 내 눈앞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학생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은 바가 없으니 말이다.

### 3) 폭력에 주눅든 학생은 나-당신-우리 사회 전체다.

폭력에 주눅든 사람은 짜증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보지 않았기에, 늘 뒤에서 상대를 씹어버리기만 했던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말문을 틔워주면, 건설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온통 투덜거림 천지다. 가끔 ‘애들 잘해줘봐야 기어오르기만 해’라는 말을 듣는데, 아이들은 실제 그러기도 한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화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불평의 언어를 가지며, 본능적으로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면화한다. 끔찍한 일이다.

학교를 바꾸는 일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의 한 출발점이다. 힘의 위계에 따른 복종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좀더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가르친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회를 바꾸어가리라는 꿈을 꾸다. 동시에 이 과정은 폭력에 오염된 내 몸,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 체벌에 대한 대안은, 학생 생활지도 차원의 고민이다. 그것은 한 학교 안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영역이다. 이미 학생은 학교를 벗어나 사회의 여러 곳에 머물고 있기에

그렇다. 이 부분은 아직 남겨진,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학부모들의 몫이다.

## 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체벌금지 국제워크숍 자료(2009년)

◆ 전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금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벌에 관대한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중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체벌금지법이 발효(2007)된 후 체벌에 관한 국민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한 폭력이 형사범죄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폭력도 형사범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학교 등 기관의 환경에서 체벌금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동을 폭행하는 것이 형사범죄이고 체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고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교사와 보육 종사자가 알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 체벌에 대한 견해 차(06.7.27. 현재 결정문에서 인용)

#### ☞ 체벌 금지 입장 : 체벌은 비교육적인 방법(결정 논거)

- 관심 영역과 개성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

- 또 벌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칫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 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능력을 강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임

#### ☞ 체벌 불가피 입장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되어야(반대 논거)

-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더욱 소중해진다. 그리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즈음에는 학교의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미성년의 학생들을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고 남과 어울려 사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여야 함

- 교사는 훈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고 훈계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훈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고 책임

- 교사는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므로, 학생에 대한 훈계의 필요성과 훈계방법의 선택에 대한 교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임

한편으로는 뉴라이트 학부모회의 발제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감정없는 체벌이 교사의 열의와 비례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6.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사례

※ 상담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할 지를 조언해주는 것이므로, 상담사례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임. 하지만,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또는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사례 1 : 교실에서 친구와 싸움을 했는데, 담임교사가 말려, 말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말려서 담임교사를 밀쳤고, 이를 본 동료교사가 내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음.
- 사례 2 : 학교에서 교복위에 입는 겉옷 색상을 검정색, 회색으로만 한정해서 입을 수 있고, 다른 색상의 옷은 압수하겠다고 하였음.
- 사례 3 : 학교에서 소방훈련 교육시 교육상 들것에 실릴 학생이 정해져 있었는데, 전교생이 모인 교육장소에서 평소 작고 뚱뚱한 콤플렉스가 있는 본인을 교사A가 보더니 붙잡고는 '이 녀석을 들것에 실자'고 하여 전교생의 웃음거리가 되었음.
- 사례 4 :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담임교사가 대나무 같이 생긴 것으로 과제를 안해왔을 때, 떠들었을 때, 지켜야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 '보약'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있음. 또한, 아이큐테스트를 했는데, 아들이 100조금 넘게 나왔고,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아이큐 낮은 놈아", "아이큐 시험이나 다시봐"라고 말하는 등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음.
- 사례 5 : 딸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데, 오늘 오전에 떠들지도 않았는데 떠들었다고 하면서 교사가 단소로 등을 강하게 때려 아프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였음. 그리고 이 교사는 "XX", "ㅇ같이" 등의 욕설을 하고 있음. 여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사례 6 : 2014. 11. 25. 교실에서 4명의 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미닫이 문을 발로 찼는데, 지나던 딸이 문에 이마를 부딪혀 3cm정도 찢어져 10바늘을 꿰맸음. 이일에 대해 담임교사는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안전공제회 및 가해 학생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이에 대해 본인에게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시냐?",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였음.
- 사례 7 :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비롯하여 타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2014. 12. 5. 3교시에 교실 칠판에 기록하여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2시간동안 칠판기

- 록이 유지되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병결이 많은 이들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함.
- 사례 8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00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강제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00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나서 학교이미지가 왜곡되고 있으니, 타학교들을 조사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 사례 9 : 담임선생님이 아들의 과체중을 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며 밥을 못먹게 하였고, 부회장 선거에 낙마한 것을 거론하며 “너 떨어질 줄 알았어”라고 라고 하는 등 아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 그러다보니 아이가 학교가기 싫다면서 의기소침해 있음.
  - 사례10 : 중학교 1학년인 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현재 징계중인데, 징계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학교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했는데, 학교측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면담을 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음.
  - 사례11 :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일반 학급으로 가라고 하였음. 본인은 그대로 특수학급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놀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도 본인이 원하는데로 하라고 하셨음. 선생님께서 반을 바꾸라고 하면 꼭 바뀌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반을 바꾸지 않도록 도움을 원함.
  - 사례12 : 학생들이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교무실 청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학교 옥상에서 교사들이 흡연을 하고 있음.
  - 사례13 : 방과후수업을 수강하지 않고 야간자율학습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방과후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 또한,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성적순으로 심화보충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적이 되는 학생은 강제적으로 하여야 함.

## 6-1 학생인권교육센터 결정문

- 14학인00004 교사의 학생 체벌 등 인권침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2015. 1. 16. 결정

중학교 A교사는 2014. 10.경 교실에서 학교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데기’를 사용하는 학생을 발견하여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를 사용하여 학생의 쇄골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음. 이는 학생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로 엉덩이를 1~2회 치고, 청소 빗자루로 때리고, 화장한 여학생들의 화장을 화장지로 강제로 지우게 하였던 점을 살펴보았을 때, 일상적으로

체벌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A교사는 “학생들을 풀어 놓았을 때와 달리, 체벌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규율이 잡히는 것을 많이 보아 체벌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때릴 때는 수회가 아니라 한대 가랑 때리고 있으며 그것도 체벌이라면 체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하게 때리는 것은 팬찮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A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학생을 세워둠으로써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또한, 학생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1-2회가 아니라 하루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 7. 학교별 특성은 체벌에 영향을 주는가?

성적 상위권 집단이 모이는 학교는 체벌이 없는가?

일반고, 자사고, 특성화고에서 체벌은 어떻게 다른가?

## 8. 토론제안

첫째 체벌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다.

둘째는 ‘피교육자에게 체벌을 가함으로써 이후 이들에게 폭력적 성향을 주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셋째는 ‘체벌 대신 다른 교육적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다.

넷째는 ‘체벌의 부정적 효과에 찬성한다면 언제부터 금지해야 하는가?’ 이다.

다섯째 ‘체벌금지가 교권을 추락시켰는가?’ 입니다.

체벌은 관습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행위이다. 법률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행위도 금지되고 있지만 학교는 갈등의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상은 이해하지만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타인 특히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체계에서 체벌은 폭력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

# 기조발제

---

참여와 소통으로  
체벌 없는 학생생활  
교육은 가능하다!

황 종 락 | 전주풍남중학교 인성인권부장 교사



## 1. 학생들 이해하기

어느 학교 중3 학생이 체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로부터 따끔한 벌을 받는데 그 벌은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벌이 가해질 때 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시절과 풍요로운 현재는 분명 다른데 지금도 그 시절 교육 방식으로 우리를 비인간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틀렸다고 때리는 것이 격려인가요?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교복 입지 않고 등교했다고 교문에서 쌍시옷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실제 학교 폭력의 절반은 선생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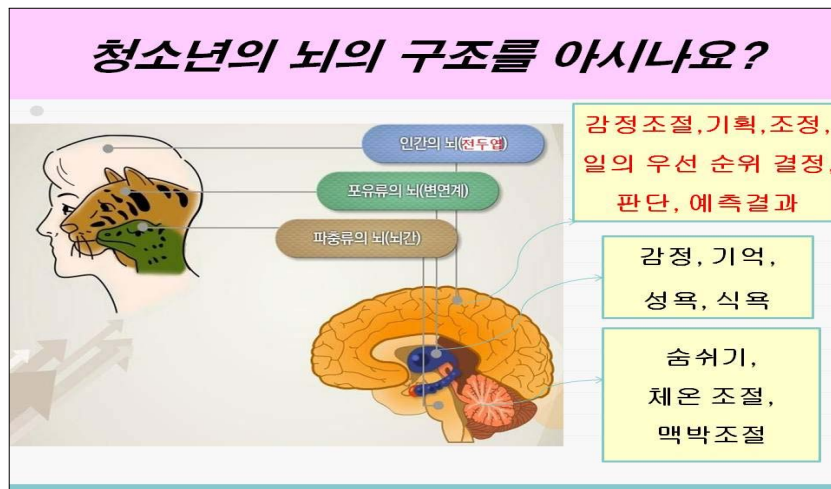
회초리가 사랑의 매로 화풀이 매로 변했습니다. 애정과 교육적 의미로 매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은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잘 잊어 먹고, 그런 점에서 차라리 어린애보다도 못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런 저희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합니다.]

뇌 과학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맨 아래층은 뇌간으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심장을 뛰게 하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일을 하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뇌간의 구조와 기능은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 위층은 변연계로서 영유아기, 아동기, 사춘기에 왕성하게 발달합니다. 변연계는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의 뇌라고 하며 기억, 성욕, 식욕 등을 주관하는 포유류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놀라고 화내고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뇌의 맨 위 부분이 전두엽인데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두엽은 언제 완성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여자는 24세, 남자는 30세가 되어야 완성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 - 청소년의 뇌 구조



## 2. 학생들과 소통하기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유아 교사의 유아들 폭행사건은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고, 잊어 버릴 만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무리한 체벌이 언론에 부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소통 부재로 인한 상처의 단상들입니다.



위 뉴스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전두엽이 아직 리모델링 중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체벌을 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교사의 열정을 체벌로 억압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위 영상에서 보듯이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벌로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께 대드는 아이는 가정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 맺기를 힘들어 하는 아이들로 “나를 좀 제발 봐 주세요!” 라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또래 집단에서 썬 척하고 싶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며, 잠을 자는 학생은 수업에 흥미가 없거나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 주는 신호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인정 욕구와 고통의 신호를 받아 줘야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변화하는데 교사는 변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고통은 악순환 될 것입니다. 교사는 전문가로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대화 방식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 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교사: 실내화를 왜 안 가지고 다니지?

학생: 저는 실내화를 교실에 두고 다니고, 현관에서 운동화를 벗어요.

그러면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교사: 작년 겨울부터 왜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

학생: 모르겠는데요....

교사: 그래 모르겠다는 얘기네....

그럼 실내화가지고 다니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말해 줄래?

학생: 가지고 다니면 귀찮아요???? 그래서 교실에 놓고 다녀요...

하지만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지는 않아요.....

교사: 그래 너는 복도에서 운동화를 신지 않고 양말로 다니니까

실내를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얘기네? ....

학생: 네...맞잖아요?....

교사: 그래! 너의 말이 맞긴 하지만...너의 양말이 더러워지는 것은 맞지?...

학생: 그렇네요....

교사: 그럼 너의 양말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실내화나 운동화를 신으면 발에서 땀이 나고 악취도 나지 않을까? 그럼 너는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너희 반 친구들은 너의 발에서 나는 악취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학생: 네 알았어요...생각 못 했어요....내일부터는 꼭 실내화 가지고 다닐게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느끼고 고치도록 존중해주는 대화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위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학교를 건축할 때 선생님 신발장만 1층 현관에 만들지 말고 학생들 신발장도 1층 출입구에 만들어야 합니다.

## 나. 벌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벌은 어때요?

- 선생님(부모님)과 완산 칠봉(모악산) 다녀오기. 정상에서 인증샷 보내기
- 선생님과 함께 퇴근하기 - 퇴근하기 전까지 시 외우기 혹은 책읽기
- 만다라 그리기 (양식 제공)
- 감동 영상 보기, 느낀 점 써보기 (영상 제공)

- 화장하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써보기 (영상 제공)

### 3. 학교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현 입시제도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과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정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토론을 통해 정해 실천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해마다 입학식 신입생들에게 하는 약속을 소개합니다.

-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겠습니다!
-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지 않겠습니다!
-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이유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상담 교사의 고백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맞고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감화를 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학교 현장에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어른들은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교장, 교감까지 소통할 줄 모른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하지만, 교사는 진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 지정토론

---





#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이 영 석

(정읍고등학교)

## 1. 체벌을 당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질문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 너무하다, 짜증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적지 않은 학생들은 ‘맞을 만 했다고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 혼나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맞을 때 오히려 반감이 든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 2.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였을 때 말을 잘 듣는가에 대한 질문, 학생들이 말 잘 듣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에 대한 질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실 된 상담을 통한 회유와 교사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있을 때 말을 잘 듣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호감도 높은 교사의 조건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학생 자신을 인간 대 인간으로 봐주는 선생님, 자신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과의 친밀도, 카리스마, 외모, 성격, 나이(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피조사자)들은 아무리 좋은 교사라 해도, 뭘 해도 안 듣는 학생들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 피 조사 학생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6번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 3. 친한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듣는지에 대한 질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렇겠지’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소수는 친한 선생님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4. 때리지 않고도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았는지,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소수의 학생들은 못 보았다고 답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은 카리스마, 성격, 개인적 호감, 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답하며, 대체로 2번과 비슷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 5. 효과·부담 등, 혹은 그 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벌점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에 대한 질문

모든 학생들은 현 벌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체벌을 당하면 그 순간 교실에서 끝나지만 벌점제는 교내 전체단위이고 벌점이 누적되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웬지 일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다른 입장에서는 벌점제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 벌점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사실상 시행을 안 하고 1~2분에 선생님만 이용하기 때문에 벌점으로 인한 처벌이 거의 없으며, 가끔 보이는 벌점 누적자 들은 아무래도 별거 아닌 봉사활동을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어차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벌점을 안 주어서 심한 징계를 당할 만큼 벌점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벌점을 그냥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벌점제가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벌점제 적극 이용과, 벌점누적으로 인한 처벌 강화를 말하였습니다.

#### 6. 체벌이 금지될 때 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질문

일반적인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는 상담, 공감, 소통 등에 공감했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체벌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 진실한 상담, 생활기록부 기록, 모욕감이 들게 할 만한 처벌(부모님 소환)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7. 체벌하면 학생이 교사 앞에서만 잠깐 바뀐 척 할 뿐 본질적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모든 학생은 맞는 말이라고 공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반감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만 바뀐 척 하고 더 심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반면 교사 앞에서 만이라도 바뀐 척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가령 자율시간에 떠드는 애들을 체벌로써 통제하는 것은 최소한 공부하려는 친구들에게 방해는 안 된다는 이유였

습니다.

## 8. 체벌에 대한 찬성·반대와 그 이유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벌에 찬성하였습니다. 체벌금지에 따르는 대안이 없고, 체벌은 혼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체벌 강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하였습니다. 현 체벌의 교사 감정에 의존적이고, 때리는 경우가 많으며,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진짜 문제아들에게는 솜방망이 정작 솜방망이 체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야자에 1분이라도 늦으면 몽둥이로 때리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 학교 전체에 담배냄새가 퍼지게 하는 학생들은 훈계나 벌점, 형식적 봉사활동에서 끝난다며 현 체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감정에 따라 매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에도 대부분이 공감하였습니다.

체벌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체벌을 한다는 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봐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과, 체벌을 안 하고도 학생을 잘 관리·통제한 선생님들을 보았다는 의견, 체벌 말고도 다른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 9. 기타

인권조례 전에는 이성적으로 때렸으나 후에는 참다 참다 터져서 심하게 때리는 것으로 느껴진다. 되도록 체벌은 반대하나 점진적으로 없애야 된다.

체벌금지로 인해 문제아들이 더 극성이면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체벌은 교사-학생간의 합의가 있을 수가 없어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권리 때문에 교권이 떨어진다.

욕먹는 것보다 맞는 것이 낫다.

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 10. 개인적 의견

### 인권교육의 필요성

먼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 상당수는 인권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대부분은 대략적인 내용과 근거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벌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생이 교사에게 맞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통해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인권교육

학생들은 교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인권교육에 접근하기 힘듭니다. 우연히 접근하게 된다 하여도, 인권교육만큼 효과를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은 자료를 교사가 안주면 끝인 일입니다. 교내 교사를 통한 교육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

먼저, 단순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소외계층을 주제로 한 UCC’는 UCC를 찍으며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학생인권관련 UCC는 수상을 위해 UCC를 찍는 것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 내에서, 설득을 우선으로 하며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학교외부강사를 초청한 인권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주제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인권교육’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체벌 대안에 관하여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체벌의 대안입니다. 한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벌이 없어진다면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교육을 통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모든 학생들이 벌점제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1. 벌점제의 숨방망이 처벌 2. 교사들의 벌점제 미사용 3. 단발성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벌점제 사용에 대해 교사들의 사용 유도

교사들의 벌점제 미사용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에 익숙해진 몇 학생들은 벌점을 주는 선생님을 ‘악한 교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께 더욱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벌점을 줘도 1~2명의 선생님만 벌점을 주는 것이다 보니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벌점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체벌 없는 생활교육 정착을 위한 교사의 제언

소 병 권

(이성초등학교 교사  
전북교총 정책실장)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제정의 반대편에서 항상 주장해 왔지만 참 논란이 많은 주제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당시의 제정 반대편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 결국 학력이 떨어질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질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대상이기에 교사들이 미숙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당연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많은 이분법적인 논란을 낳았고 필자가 보기에든 제정을 찬성하자는 쪽의 학생의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만 신장된다는 이분법적 논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서로가 모순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는 2013. 7. 제정 찬성의 손을 들었다.

인권조례 제정 2년, 학교를 지배하는 규정이 바뀐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 2010년도부터 체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2015년 지금 사회에 체벌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체벌 위주의 교육은 대가족주의 문화에서 훈장 같은 도제식 교육 방법속에서나 가능했던 교육 유산이고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핵가족 사회와 기본적인 인권이 향상되고 교육의 방법이 다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체벌 금지를 교사들은 두려워할까 이러한 이유는 생활교육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은 교육철학과 행정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지만 생활교육과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지

도에 대해서는 서문으로만 지도되지 체험형·교감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유추하고 그대로 실행되어져 왔을 뿐이다. 즉, 우리가 부모님한테 회초리로 교육을 받은 것이 머릿속 깊이 인식되었고 ‘사랑의 매’로 각인되어 그대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질문해보지 않았고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감정이 실리거나 비교육적이고 충동적인 체벌은 엄연히 ‘폭력’이고 ‘아동 학대’일 소지가 있다.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매’라는 엄청난 권한과 편리한 지도수단을 잃어 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그러한 노력으로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바가 있다.

전북의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인식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기관은 당연히 ‘학생인권교육센터’이다. 하지만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기에 이를 개선할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한다.

1) 현장 교원의 강력한 연수가 필요하다. 지금 공립초·중등학교와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의무적 연수 등을 통하여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일단은 교실 안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사들에게 체벌금지의 이유와 생활교육의 방법 등에 대해서 강력하고 많은 연수와 열외없는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2) 학부모와 교사 이제 같이 가야합니다. 학부모는 맘에 안들면 무조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 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교사는 학부모를 무조건 피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교실 안의 문제와 더불어 학교의 문제는 결국 소통하고 협의하면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결국 우리 모두의 교권과 인권이 모두 신장될 것입니다.

3)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몇차례에 걸쳐서 교사들의 체벌사례를 가지고 기자회견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또 고소를 한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것이 교사들의 체벌을 막고자 하는 홍보적이고 경고적인 방법으로는 좋지만 개인의 징계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정식 재판으로 인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나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소지 우려가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상황을 피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방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4) 작년에 벌어진 교권침해 사건등과 복합학교의 학생간 폭력 사건에도 인권센터가 이에 대한 대응과 지원에도 나서야 된다고 본다. 앞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면, 교원이 피해자로 된 경우는 인사과, 학생간 폭력은 인성건강과, 학생이 피해자가 된 경우(교사의 체벌인 경우)는 인권교육센터가 개입이 되었었다. 하지만 부서별 처분과 지원의 차이가 극명하고 조사권한과 전문가들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이 연관된 이슈적 사건과 다수 학교의 학생들이 관련된 복합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권과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조례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몇가지의 제언을 두서 없이 했지만, 조례를 제정했다고 인권센터 하나를 만들었다고 수백년의 전통과 인식이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바뀌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의 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과 인권교육센터, 학부모, 시민 단체등이 지원을 해줘야 하며, 조급해 한다고 무조건 교육현장을 채찍질만 하면 말이 주인을 피한다는 고사를 잘 새겨들어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체벌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양 은 신

(학부모/평등학부모회)

학교에서의 체벌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체벌은 누구를 위한 체벌인지? 과연 체벌이 있어야만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체벌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분명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틀을 만들어가다 보면 체벌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인정할만한 것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라면 한번이라도 학교나 교사의 눈치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만을 잘 봐달라는 자세가 아닌 혹여 부모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학교생활을 힘들게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생기는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당당히 동등한 입장에서 내 아이에 대한 미래와 진로, 학교에서의 적응을 고민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에도 일정부분 갑을의 관계처럼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교육과정도 필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부만 강조하는 학교교과정에서의 인권의식에 대한 부재로 인해 아이들과 교사가 소통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가장 상처를 받고 힘든이는 당연 학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금방 드러나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수습을 할 수도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폭언이나 비아냥거림, 곱지않은 시선, 행동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체벌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특성화학교에 재학중인데 학교교과수업시간에 담당선생님도 아닌 임시 선생님께서 학교전체 아이들을 향해 무시와 경멸하는 말을 남발해서 상당히 충격과 화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하소연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도 더한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것인지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아이의 정서와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또한 내 아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되새기며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릴 적 상처입은 정서는 어떤 경로로든 표현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타인이 알기까지 상당한 희생이 따르거나 되돌리기 쉽지않은 감정으로 자리잡게 되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기에 본인 및 주변상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아이도 있을 것이며 기관의 도움도 무색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부분만 해결된다고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는 통제가 힘들다고 체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이전에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혹여 자신의 논리로만 아이들에게 접근한건 아닌지... 아이들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기울이도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이해해 본다면 충분히 체벌이 아닌 다른 형태의 훈육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학교의 주인, 배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깊은 고민을 해본다면 어떨까? 체벌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부정적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존재는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학생 그 자신이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건 어떨까요?

물론 많은 교사들에 의해 체벌방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체벌이며 자신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더 나아가 공동체하는 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의 틀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방문하기, 전주천 청소하기, 모악산등반 등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봉사활동 체벌같은 형태를 말하고 싶습니다.

체벌을 근본적으로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정부분 동의가 되어야하며 아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체벌이 또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칩니다.

# 학생 체벌을 바라보는 중학생의 이야기

한 주 영

(완산중학교 3학년)

저는 학생 체벌에 대해 반대합니다.

먼저, 학생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는 선생님께 반항한다거나, 숙제를 안 해서 온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즈음엔 그런 경우에 체벌해야만 학생이 반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체벌의 실태를 보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예를 들면 숙제를 해 오지 않았거나,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은 가장 먼저 매를 듭니다. 학생 처벌이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처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처벌이 교육상에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 같은 경우를 보면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는 교육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체벌이 아니더라도 그 학생에게 반성하게 하는 방법은 많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우를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학급 부실장이었고,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자율시간이 있었는데 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시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실장, 부실장 나오라고 하시면서 너흰 반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5대 넘게 때려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손에 빗자루 자국대로 멍이 들어서 필기하는 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학생 체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벌 받는 학생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내가 잘하면 맞을 일은 없지!”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으면서 선생님께 “이거 학생 체벌 아닌가요?” 또는 “학생 체벌 불법 아니에요?” 라고 말

숨드리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 지도,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숙제해 오지 않은 학생에게 다음에도 해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시거나, 떠드는 거 걸리면 맞는다고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교육상의 목적이 아니고 거의 협박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떤 선생님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 학생에게 먼저 ‘자세 바르게 앉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작정 때리거나 수행평가 점수를 깎아버리십니다. 이 상황은 거의 학생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본 학생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그 학생이 좀 단정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네가 그런 아이였니?”라고 하면서, 원래 예의 없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학생으로 낮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삼는 학생들이 있지요. 평범한 학생이 어쩌다가 문제 되는 학생이랑 논다거나 얘기를 하면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마라”, “저런 애들이 말 시켜도 그냥 무시해라”, 라는 식으로 학생을 비하합니다. 학급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을 이렇게 말로 비하 것도 학생 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보면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사례들은 언어로 학생을 낮추거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다고보다는 선생님들의 독재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될 만큼 선생님이 맞춰서 따라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을 놨은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또래는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예절도 아직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화를 밖으로 표출하기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게 한다면 학생과 선생님은 체벌의 억압보다는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게 된 동기와 경위, 처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처벌 장소, 처벌로 인한 상처 받을 정도 등도 고려하고, 선생님이 언어로 학생을 비하하는 행위도 학생 체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체벌은 심할 경우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이유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육에서 체벌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가르침으로 교육을 통한 바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 또는 제 경험 등으로 인해 학생 체벌은 반대하고, 교육에서 반드시 체벌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을 들어주시어 고맙습니다.

# 우리 아이 학교에서 체벌해도 되는가

현 병 만

(학부모)

스탠리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 의하면 “복종은 한 개인이 권위에 복종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그런 행위의 작용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자발적이면서 강박적인 성향이 없는 만큼 복종은 협동적인 분위기를 띠고, 또한 개인에 대한 강요나 처벌의 위협이 암암리에 존재하는 만큼 공포는 복종을 강요한다. 오랫동안 미덕으로 추앙받아온 권위에 대한 복종이 해로운 목적에 기여할 때, 미덕은 사악한 죄악으로 바뀐다. 상사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며, 동료들의 습관, 일과, 언어를 따라하는, 즉 행동을 획일화 시키는 것이 동조 라고 한다. 놀랄 만한 점은 불복종을 통해 일단 ‘얼음이 깨지면’, 사실상 모든, 긴장, 불안, 두려움등이 사라졌다”고 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은 안드레아스 쿠르시키(1955)의 사진 작품들이다.

그는 단순한 사물에서 현대 인간이 가진 구조화되고 서열화 된 현생인류에 대한 비판의식을 사진 속에 담았다. 사회의 한 구조물로서 객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현실을 한 장의 사진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구조의 동물이라 한다. 스스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안에서 생존을 모색하였다. 인간은 처음엔 가족 그리고 부족, 민족, 국가를 차례로 만들어 왔으며, 가정내에는 자녀와 부모, 기업안에는 비정규직,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 회장이란 계급이 존재하며, 학생, 교사, 교감, 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안드레아스 쿠르스키의 사진들 - 파리 몽파르나스(1993)〉

학교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하학에서는 프랙탈이란 이론이 있다. 프랙탈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부분에 전체의 모습을 갖는 무한 단계에서의 기하적인 도형을 얘기한다. 유사성과 순환성이라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즉,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유사성과 순환성을 기하학적으로 푼 것으로,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 사회가 무한경쟁사회로 인한 비인간적 사회이며, 그 사회가 폭력성이 만연한 사회라면 그 폭력성은 돌고 돌아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학생들의 집단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교사에 의한 체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교육적 명목이란 명분안에서 가해지는 체벌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형화된 인간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학교 안에서의 체벌은 단순한 학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가 투영되어져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프랙탈이론에 대입해보면 특정화된 인물에 의해 그 폭력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서열화되고 계급화된 폭력과 통제의 메커니즘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그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또한 우연한 기회에 그 효과를 직접 확인 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끝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

즉, 단순히 선생과 학생에 대한 체벌은 단순한 교육적 차원을 넘어 학생으로 하여금 폭력을 학습화하게 되어, 끊임없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 그동안 학습된 권위에 대한 복종(무의식적으로 서열을 나누어 힘을 가진 이에게 자연적으로 복종하는 현상)이 학교 안에서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다. 선생과 학생을 넘어서 학생간 또는 졸업한 이후에도 학습화된 폭력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 하게 되어 상부에 위치한 자는 하부에 위치한 자에 대해 폭력(강압)을 행사하는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이 발생한다.

한번 잘못된 구조라 하더라도 그 구조가 한번 고착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끈질긴 생존력이 생기는 것이다.(전쟁, 독재, 독점기업, 카르텔, 마피아) 그리고 그 구성원은 인류사회에 끊임없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놀라운 통찰력으로“인간이 적응 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란 없다. 특히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에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선생의 학생에 대한 체벌도 마찬가지이다. 선의의 체벌은 결국 의도하지 않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학습하게 하여 이 사회를 폭력의 굴레에 빠지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선의의 체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